

포퍼의 플라톤 정치철학 비판에 대한 응답 —플라톤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김우성 · 조상태
행정학
(1987. 9. 30)

< 要 約 >

본 논문은 플라톤의 정치철학이 포퍼의 정치사상보다 우리의 삶의 규범을 정립하는데 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데 있으며, 또한 근대성과 기술적 정형문화의 나쁜 산물(부정의, 소외, 불평등, 불행)이 플라톤의 전체성과 유기적 정치철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퍼의 원자론적, 기계적 정치사상에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포퍼의 정치사상은 비결정론과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전체주의로 간주하고 플라톤의 정의는 평등개념이 아니고 지배계급의 특권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역사주의는 무용하며 개방사회의 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의 사회공학과 특히 그의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포퍼의 결함을 밝히고 플라톤의 정의의 해를 인지하고 현대사회에 그것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A Reply to Popper's Refutations of Plato's Political Philosophy —In relation with Plato's theory of justice—

Kim, Woo-Song · Cho, Sang-Ta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Received September 30, 1987)

< Abstract >

This paper is intended to make clear that plato's political philosophy is more availavle for our constructing norms of life than popper's political thought, and it is also intended to explain that the bad products(injustice, alienation, unhappiness, inequality) of moderity and the technomorphic culture are caused not by Plato's holistic and organic political pilosophy but Popper's automic and mechanic political thought.

Popper's political thought is based on indeterminism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So he regarded Plato's political thought as totalitarianism and he criticized that Plato's justice is not an equal concept but the privilege of the ruling class, And he also criticized that historicism is useless and it is the enemy of the open society.

But Plato's political philosophy is never same with totalitarianism and his justice is truly an equal concept. The reason why Popper criticized Plato's political philosophy made by his social engineering especially hi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make clear Popper's fault, to recognize the core of Plato's justice and to illuminate it in contemporary society newly

1. 머리말

플라톤에 대한 평가는 한없는 찬사와 즐기찬 비난이 현재까지 공존해 오고 있다. 그에 대한 찬사는 그로부터 서양 문명의 훌륭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비난은 폐쇄사회의 선구이며 종족주의자이고 전체주의의 원조이며 서양문화에 있어서 추악하고 위태로운 이데올로기의 선구자라고 비난한다.

결국 플라톤은 서양세계의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플라톤이 아테네의 적이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의 정치철학이 민주주의의 이상에 상반되는 것인가?

우리는 플라톤에 있어서 논리적 과도성이 있음을 시인하며 플라톤주의와 개념적인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점을 일버부려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플라톤에게는 민주주의적 측면이 전혀 없다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플라톤을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포퍼 역시 그렇다.

우리는 플라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퍼의 플라톤에 대한 저작의 왜곡된 의도를 간파하여야만 한다. 물론 이 분석은 사회공학자와 철학자 간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융합을 시도하는 일원론적 철학방법으로 출발한 사람으로 목적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포퍼는 가치라는 종류의 문제는 대답하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방법론적 본질론을 거부하고 방법론적 유명론을 주장한다.

플라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도덕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예를 들어서 국가란 무엇이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포퍼는 어떤 도덕적 가치를 임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도덕적 가치가 임의적이라면 포퍼 자신이 개방된 사회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자유, 평등, 개인주의는 도덕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포퍼의 플라톤에 대한 공격의 목적은 대단히 식별하기 어렵다.

포퍼 자신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플라톤을 역

사주의자로 몰아 부치고 있으나 플라톤 역시 우리의 미래를 운명에 맡기는 역사주의¹⁾자는 아니다.

본 논문은 이렇게 왜곡된 플라톤의 정치철학을 다시 한번 음미함으로써 현대 개방사회가 낳는 불평등, 불행, 부정의, 소외, 잘못 정의된 자유의 이상에 어떤 뜻있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2. 정의론(正義論)

본 장의 의도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자연주의의 이론이 아니며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상주의 철학임을 확인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정치철학이 포퍼가 주장하듯이 불평등에 기초한 전체주의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플라톤의 정의(正義)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있다.

(1) 최선국가의 정의(正義)

포퍼는 자신의 저서 “개방된사회와 그 적들”에서 주장하는 4가지 정의(正義)²⁾에 플라톤의 정의(正義)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서술한 각 사람마다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신의 천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을 한가지씩 해야 할 것이다³⁾ 라는 문귀에서 지배자는 지배하고 노동자는 노동하고 노예가 노예일 수 있다면 국가는 정의롭다⁴⁾ 라는 문귀를 추론하여 플라톤은 계급특권을 정의(定義)라 부른다고 주장하며 또한 플라톤은 정의(定義)를 계급·사이에 근거한 전체주의 국가의 성질로 간주했으며 개인의 평등관을 말살했다고 주장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퍼의 비판은 전체주의 개념⁶⁾이 현대 대중사회 출현 이후로 나온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무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은 그 시대성, 즉 역사성을 항상 함축하게 됨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이럼으로 해서 플라톤의 근본적인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입장을 구축하고 비판 자체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

1) 포퍼에 있어서 역사주의는 역사적 발전 또는 전개의 필연적 법칙이 있으며 모든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 Row, 1964) Introduction 참조.

포퍼의 이러한 역사주의의 견해는 현대의 전체주의 개념과 마르크시즘을 비판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용성을 갖고 있으나 플라톤의 holism (platonism)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2) K·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memies*, Vol, 1 plato (London/Routledge & Kegan paul, 1973) p, 89참조.

3) Plato, *The Republic*, trans, by, F.M.Corn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433.

4) Popper, *The open socity and It's Enemies*, Vol,1 Plato p,90.

5) Popper, 같은 책, p,90.

6) 전체주의의 개념은 그 정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는 그 개념이 권위주의, 독재, 참주제 등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주의의 개념을 대략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전체주의는 현대사회 현상이다. ② 개인을 무력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타락시키며 ③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④ 군사, 경제, 문화 등을 감시·통제하여 그 사회를 획일화 시키며 ⑤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힘으로 국민을 복종시키는 체제이다.

플라톤은 정의(定義)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법적인 의미나 권리의 개념으로 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권리의 유지 그 상호관계에서 정의(定義)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플라톤의 정의(定義)는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의 규칙 기준으로서 이해된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인간이 행위하는 것과 법의 시민주로서 행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등의 차이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플라톤은 “국가”편 443에서 「그의 영혼 가운데서 각기 자기의 소관이 아닌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분야에 참견하고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며 글자 그대로 본래의 자기 자신의 일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플라톤이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차등적 계급국가를 형성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편 353—354에서도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론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로서 정의(定義)를 획득하는 면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고 플라톤은 국가편 1권을 맺으면서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은 어느 한 계급만이 특히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나라에서 만이 비로소 정의(定義)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치를 잘못하는 나라에서는 부정을 발견할 수 있으니……. 행복한 국가는 어느 특수층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행복을 이룸으로써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플라톤의 국가는 현재적 의미의 전체주의 국가적 성향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구성원 간의 조정과 균형을 통한 조화를 달성하여 올바른 상태(dike)에 도달하고자 했다.

(2) 평등주의적 정의관(定義觀)

포퍼는 만인 평등주의는 플라톤의 고래의 적이며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자 했다⁸⁾고 주장했다.

플라톤의 평등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견해는 “법률”편에서 차등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이다⁹⁾라고 한 주장을 포퍼가 인용하면서 플라톤이 평등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가능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평등의 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규범적 진리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은 어떤 제한이 없이는 평등하지 않다. 모든 관점에서 똑같은 일들이 개인에게 개인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요구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플라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며 평등의 원리에 상반되지 않는다.

플라톤에 있어서 평등은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 활동이 왕성한 남자에게 보다 많은 고기를 주는 것¹⁰⁾을 의미한다. 어떤 점에서는 포퍼는 진정한 만민 평등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평등하

7) Plato, 앞의 책, 420.

8) Popper, 앞의 책, p.93.

9) Plato, Laws, trans by, A·E·Taylor (Bollingen Series LXXI, princeton, 1973) 757

10) Plato, Republic, 338.

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구¹¹⁾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리를 그럴듯하게 꾸며낸다.

우리는 공정성의 원리를 평등의 원리와 동일시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진정한 만민 평등주의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이때 평등의 원리에 대한 호소는 플라톤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사람에 대하여 똑같은 대우, 똑같은 분배를 결코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퍼가 “국가”편에서 나타난 재화의 분배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플라톤이 평등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못된다.

포퍼가 주장하는 공정성의 원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구에서 모호한 것이고 사람들 간의 차이가 적절한 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호하다.

포퍼는 평등의 원리에 또 다른 불만을 토로한다. 그것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균등히 분배함……. 이익에 있어서 공정한 분배¹²⁾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원리는 플라톤이 확실히 받아 들이고 있는 것과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의무의 균등한 분배,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여러가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육체적, 정신적 조건 등에 따라서 동일한 분배는 불가능할 것이며,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필요가 다른 것이며, 설사 똑같은 양의 분배를 한다 해도 만족도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볼 때 포퍼나 플라톤이나 모두가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복을 목표로 하는 폭넓은 의도를 가진 공정성의 원리의 의미에서 평등의 원리가 승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포퍼는 평등의 원리에 특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며 가장 엄격한 계급 구분인 카스트제 국가라는 것이다.¹³⁾

카스트제 국가에 있어서는 분배에 대한 기준이 출신이므로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는 어떤 자연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진정으로 동의한다. 지금까지 논했던 것처럼 플라톤은 이런 근거 위에서 어떤 것을 분배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나쁜 의미에서 절대로 계급국가를 의도하지 않았다.

우리가 계급국가를 정의할 때 공동체내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 회구하고 자신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특정한 집단을 이룰 때 이러한 국가를 계급 국가라 부를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도 이런 의미에서는 계급국가의 정의를 부정하고 어떤 특별한 이익의 획득을 위한 특수 계급에 의한 통치란 의미로 규정할 때는 플라톤의 국가는 계급국가가 아니다.¹⁴⁾

우리는 개인에 할당된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이 개인의 혈통에 의하여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플라톤의 국가가 계급사회라는 제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자 한다.

이런 제안에 직면하여 플라톤의 국가가 계급사회라는 비난을 부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11) Popper, 앞의 책, p. 95.

12) Popper, 앞의 책, p. 89.

13) Popper, 앞의 책, 46-47.

14) 고대국가에 있어서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특별한 이익이란 항상 경제적 이득과 관계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플라톤의 국가는 통치계급에게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플라톤의 정의(正義)는 개인이 그 본성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자신에 맞는 하나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원리의 채택을 요구한다.¹⁵⁾

이와 같은 논의에서 볼 때 고용의 기준으로서의 출생이 아니고 소질이 그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국가는 지배자 계급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되었고 그것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면 종족주의와 계급사회라는 비난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플라톤은 소질을 근거로 하여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했던가? 소질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거부하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포퍼는 계급 사이에 혼합이 있어서는 안된다¹⁶⁾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플라톤이 소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포퍼는 추가해서 플라톤이 “국가”편 415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할 때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547에서는 실제상으로 이러한 허락을 철회했다고 말한다.

포퍼에 의하여 인용된 이 항은 지배자의 역할을 할 소질을 가진 다수의 집단에서 태어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고 개인의 소질이 다수 집단의 역할에만 적합하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그런 개인이 통치자의 역할을 하면 국가가 패망할 것이라는 데만 주의를 집중한다. 여기에서는 플라톤의 근본적인 원리, 소질이 사회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는 것에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

포퍼는 통치자 계급의 양친에서 청동과 철의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어린이가 태어났다면 농부와 도공의 집단(다수자의 집단)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플라톤의 진정한 의도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므로 혈통의 근거에서 어린이의 신분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 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보고, 듣고, 행위하는 곳에서 자신의 천성이 개발된다는 견지에서 볼 때 보고, 듣고, 행위하는 곳은 태어난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적성이 기준이 되는 사회의 목표에는 별반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에 의한 천성의 개발 그 자체는 소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플라톤의 국가가 여러가지 제반 이익들이 출생의 기준에 의하여 분배되는 계급사회라는 주장을 지지할 근거가 없어진다. 재력이 분배의 기준이라는 언급도 전혀 “국가”편에서는 없다. 오로지 근본적인 기준은 소질이다. 그것은 능력과 관심을 포함한다. 물질적 소유는 다수 집단이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났다는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서 지배자 보다 차라리 다수 집단에게 분배되어진다.

포퍼에 의하면 플라톤의 국가는 노예국가이며 지배계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은 노예상태에 있다¹⁷⁾고 주장한다. 우리가 노예를 자신의 권리가 무시되고 침해받는 인간을 의미한다면 이 비난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15) Plato, Republic, 370, 423.

16) Plato, 앞의 책, 434.

17) Popper, 앞의 책, p46-47.

플라톤은 인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일에 종사하는 국가를 창안했다. 이러한 국가에는 각자 자신의 소질에 맞는 각자의 직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예는 불필요하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수호자 계급들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들의 물질적 수준은 수호자 계급보다 더 높았고 그들의 근본적 권리는 인정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면 노예는 도구다. 도구라는 의미는 창의성이 전혀 없고 예측된 존재이며 경제적 소유도 없고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플라톤이 그의 국가에서 노예제를 옹호했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그리고 “국가”편 어느 곳에서도 노예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국가”편에서 금권정치가 낳는 부패가 자유민을 노예로 만들어 특수층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실을 더욱 더 우려하고 있다.¹⁸⁾

플라톤에 있어서는 인간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3. 선 전

플라톤이 우리들에게 남긴 지적 유산은 이성에 대한 신뢰와 진실에 대한 존경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배자의 사상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불쾌하게 한다.

플라톤의 “국가”편에서는 지배자까지 설득할 수 있고 물론 그밖의 국민을 설득키 위한 「고상한 거짓말」(one noble lie)¹⁹⁾을 플라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심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얼핏 보기에는 전체주의적 선전을 상기시키는 것 같이 여겨진다.

여기에 대한 포퍼의 비난은 대단히 격렬하다. 그는 이 과정을 극악한 나찌 선전국의 활동에 비교하고 플라톤의 「고상한 거짓말」(one noble lie)은 피와 흙과 지배종족이라는 인종주의를 국가의 순결한 주민에게 주입하기 위한 시도라고 했다.²⁰⁾

우리는 모든 면에서 플라톤이 「고상한 거짓말」(one noble lie)에 대한 플라톤의 개념을 옹호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포퍼의 플라톤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플라톤은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²¹⁾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플라톤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미워하고 스스로 견디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거짓말인 정신의 거짓말은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단지 일부러가 아닌 거짓말, 말만의 거짓말은 인적 통합성과 사랑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18) Plato, *The Republic*, 547.

19) Plato, 앞의 책, 414.

20) Popper, 앞의 책, 136-141pp.

21) Plato, 앞의 책, 383-435.

“국가”편 다른 곳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²²⁾

누군가가 친구에게서 그의 정신이 멀쩡할 때 무기를 빌렸다가 그가 실성했을 때 그것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되며 또 되돌려 주는 사람도 옳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실성한 사람에게 사실을 곧이 곧대로 말할 생각으로 있는 사람도 옳지 못하다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런 면에서 그의 기준은 대단히 높았다. 이것을 「말만의 거짓말」이라 부른다.

이상국가의 수호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추상적인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계급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말만의 거짓말」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그것은 국가 자체의 건전한 이익(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말만의 거짓말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통합, 공동된 열망을 끌어내기 위해서 신화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된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양성이나 교육, 그들이 겪었다거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꿈에 지나지 않고 실은 그때 땅 밑에서 그들 자신은 틀에 잡혔고 양성되었으며 그들의 무기나 그밖의 모든 장비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만들어졌을 땐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땅은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고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마치 그들의 어머니나 유모처럼 생각해서 그 곳을 걱정하고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야 하고 또 다른 국민들도 형제이며 같은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애길세」²³⁾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같이 형제이긴 해도 그러나 신께서는 자네들중에서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듦에 있어서 그들이 태어날 때 그들에게 황금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해서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일세 그러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은을 섞으셨지. 또 농사꾼이나 그밖의 기공들에는 쇠나 구리를 섞으셨다네. 그런데 자네들의 아이들은 대개 자네들 자신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자네들은 모두 한 핏줄이기 때문에 금에서 은의 자손도, 또는 은에서 금의 자손도 태어날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도 서로 그렇게 태어날 것일세. 그래서 지배자에 대한 신의 첫째의 막중한 명령은 이것일세. 즉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손의 훌륭한 방위자가 되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손을 열성적으로 지켜야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속들 중의 어떤 것이 그들의 영혼에 섞여 있는가를 보고 만약 자기 자손이 구리나 쇠가 섞여서 태어난다면 결코 가엽게 보아서는 안되고 그 본성에 어울리는 명예를 주어서 기공이나 농사꾼 속으로 밀어버리고 만약 이들 중에서 뜻밖에 금이나 은 섞인 자손이 태어난다면 그들의 체면을 세워서 어떤 자는 방위자로 또 어떤 자는 보조자 자리에 오르도록 하되 그 까닭은 쇠의 방위자나 구리의 방위자가 나라를 지킬 때에는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신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일세」²⁴⁾

포퍼는 이 신화가 종족주의의 표현이며²⁵⁾ 기질은 유전적이고 종족의 특징²⁶⁾이라고 주장한다.

22) Plato, 앞의 책, 331.

23) Plato, 앞의 책, 414.

24) Plato, 앞의 책, 415.

25) Popper, 앞의 책, 139-140pp, 153-155pp. 참조.

26) Popper, 앞의 책, p140.

이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우생학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 기질이 유전적 경향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 특징으로부터 인종주의와 종족주의를 끄집어 낸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퍼가 주장하듯이 수호자가 신화를 자신의 지배야욕을 위하여 정당하지 않게 정치적 선전으로 이용한다면 이것은 영혼의 거짓말로 자기 기만적이 된다.

플라톤이 신화의 필요성을 대단히 강조 했다고 믿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통일, 통합,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없이 이러한 신화를 개발해 왔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화의 정치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플라톤이 새삼 강조하여 우리에게 심어주었다고 사료된다.

4. 검 열

플라톤의 진리의 개념을 독단주의로 파악한 포퍼는 그가 전체적인 형태의 검열을 통해 사상을 통제한다고 비난한다. 포퍼는 플라톤의 국가는 엄격한 언론통제 심지어는 구두토론까지도 통제하는 지배계급의 교육 목적에 의거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대립시킨다.²⁷⁾

플라톤의 국가에는 심지어 시민의 구두토론까지 제외되어 시민을 수동적으로만 만드는데 기여하여 그들이 반대관점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은 포퍼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국가”편에서는 어떤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국가”편은 게팔로스,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 아레이만토스가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개진할 풍부한 기회가 주어진 대화이다. 플라톤의 “국가”편은 바른 결론을 끄집어 내기 위하여 끝없는 질문과 대답의 변증법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있다. 많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의견의 표현을 억압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플라톤의 드라마에 대한 비난은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검열은 특별한 성질을 가진다. 플라톤은 심미적 기준에서 검열을 하지 않는다. 위대한 시민으로서 호머의 찬양은 명백히 인정되어진다.²⁸⁾ 검열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의 특징과 태도를 지양시키는 것에만 계획되어진다.

우리는 나쁘고 미친 남·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시와 드라마에 표현된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²⁹⁾ 왜냐하면 삶에서 문학의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이다.³⁰⁾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낳게 하는 음악의 형식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플라톤의 가정은 우리가 찬양하는 작품상의 인물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대에 있어서 허구적 특징의 영향력있는 암시가 없다면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치와 같다.

반면 결정적인 가정들이 명쾌하게 증명되어 질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찬양하는 문학

27) Popper, 앞의 책, p130.

28) Plato, 앞의 책, 387.

29) Plato, 같은 책, 396.

30) Plato, 같은 책, 395.

에서 구체화된 가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이 경험적 가정이 합당하지 않으면 검열의 필요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승인하면서.)

쟁점의 요점은 문학(현대의 의미에서 베스·메디아도 포함)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의 예를 검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이다. 그것들이 대중 속에서 유사한 행동을 고무한다는 가정 위에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와 검열이 원리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의상으로 검열이란 자유의 제한을 포함한다는 근거 위에서 비난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공동체의 지적인 쇠약을 방지하기 위한 열망은 삶의 지적인 탐구로 점철된 철인왕의 존재에 의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열은 지적인 탐구가 있는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동의 보다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청중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유혹하고 설득시키는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연설을 하든 저작을 하든 그것이 정당하게 제한되면 밀이 이타적 행위라 부른 것에 대한 실현을 할 수 있다. 자유로운 표현의 제약은 사회의 다른 가치에 근거하여서만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5. 플라톤과 정치의 이상

(1) 절제된 자유와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을 보면 자유와 인민주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온건한 법체제에서 페리클레스의 과격한 민주주의로 대체해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³¹⁾

플라톤은 포퍼와 같은 전자의 견해를 취하지 않고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는 포퍼가 위대한 세대라고 부른 소피스트와 페리클레스 시대의 웅변가들의 회의적이고 유물론적인 견해가 아테네에 타락의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는 구절은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타난다.³²⁾

아테네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이 일단 관직을 잡으면 그 권위를 이용하여 많은 수탈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관직을 이익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런 결과는 그리이스를 시민투쟁으로 이끄는 정치·경제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시민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직에 나아가고 그 결과로 관직을 얻기 위한 전쟁이 시민전쟁으로 나아갔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는 부자와 빈자, 압제자와 피압제자로 나누어져 서로간에 자신의 이기적 만족만을 구하는 급진적인 개인주의로 전락했다고 플라톤은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테네의 상황을 자유와 인민주권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자는 플라톤이 개인성을 파괴하고, 플라톤의 체제는 개인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플라톤은 절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민주주의에 별반 위배되지

31) E·Barker,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London, dover publication, inc, 1906), 42-43, pp

32) Plato, 앞의 책, 521 참조.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플라톤은 자유를 악으로서 오도하고자 하지 않는다³³⁾는 사실 어떤 환경에서 개인에게 자유가 부여됨으로써 더 좋은 것이라 논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와 종속은 양자가 과도해질 때 파괴적이며 합리적 척도로써 잘 부여될 때는 유익하다³⁴⁾고 말한다. 이 진술은 합리적 척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라톤의 형식적 진술은 정부와 법률 믿는 어떤 이론가에 의해서도 주장된 것과 같은 입장인 것은 명백하다. 즉 사회 내에는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일이 당연한 일일 때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자유와 원리가 궁극적 상태라는 가정하에서는 공적 활동과 정부는 악으로 여겨지고 정부의 기능은 그것이 아무리 번덕스럽고 악순환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거하는 기능으로만 축소된다. 이런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는 무정부상태와 구별하기 힘들게 된다. 다른 시대의 경험은 말할 것도 없이 현대의 경험은 자유와 방종을 동일시 할 때는 플라톤이 지적한 것처럼 가장 목심맞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의 지배로 이끌어진다³⁵⁾는 것을 보여준다.

포퍼는 국가의 기본적 목적의 존재성을 인식하며 시민을 해치지 않는 자유의 방어³⁶⁾를 주장하고 시민을 해치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와같은 의미는 자유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유 그 자체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나 자유의 원리가 궁극적 원리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논점의 부족에서 볼 때 플라톤을 비난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어떤 면에서 플라톤의 절제된 자유 속에 그의 이론이 포함되는 것 같다.

이와 아울러 플라톤이 인간의 선을 모든 인간에 의해 공유된 본성의 실현으로 정의한 것과 인식력의 훈련이 민주주의적인 지적 훈련에 필요하다는 것과 이성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민주주의의 전통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 개방된 사회에 주는 교훈

개방된 사회라는 용어가 갖는 정확한 의미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 용어는 포퍼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개방된 사회의 특징은 자유의 강조이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의 영향을 줄임으로서 가능한 한 개인은 자신에게 직면한 어떤 상황을 합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자신의 선택 하에 행동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고 한다.

포퍼는 서구 민주주의사회의 특징이 위와 같으므로 서구 민주주의사회가 개방된 사회라고 요약한다. 이런 개방된 사회로의 이행은 제국주의가 필연적이었음을 포퍼는 시사하고 있다.³⁵⁾ 자신은 노예제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개방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 제국주의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방된 사회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포퍼는 서구의 제국주의가 낳은 결과와 긴장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플라톤이 경고한 가장 중심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경쟁과 긴장이 만연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에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대해서는 심한 회의론을 갖게 된다. 에릭·프롬도 “자유로

33) Plato, Letters, trans, by, L·A·Post(Bollingen Series, LXXI, prinston, 1973) 334.

34) Popper, 앞의 책, p110.

35) Popper, 앞의 책, p181.

부터의 도피”에서 만연된 자유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시사한 바 있다.

우리가 포퍼에게 묻고 싶은 것은 개방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땅한 이유라도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는 포퍼 자신도 아무런 대답을 찾지 못한다. 포퍼도 행복 자체를 전혀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과 긴장이 감도는 개방사회에서는 빈곤이라는 엄청난 산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플라톤은 이 문제를 욕심과 경쟁의 필연적 결과로 보고 있다.³⁶⁾ 이것은 현대사회에 플라톤이 주는 커다란 교훈이다. 현대의 경쟁사회가 양심을 외치고 있지만 부는 일방적으로 양심의 반대편에 섰고 빈곤의 결과는 비참이었던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각자 저마다의 소질에 따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오는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 직분에 만족함으로써 오는 행복감, 이에 따른 사회의 조화, 안정, 통합에 대한 교훈은 플라톤의 영향을 잇을 수 없다.

플라톤의 목적은 평화적 방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무력 충돌이나 권력자의 단순한 교체에 의한 변화 보다도 더욱 심오한 변화, 혼돈된 감각의 경험으로부터 영혼으로만 볼 수 있는 지적구조로 전환시키는 인간정신의 새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결국에는 이성과 철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형성에 이르고자 한 것이다.

6. 맺 는 말

본 논문은 포퍼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의 응답으로 플라톤이 역사주의자, 독단론자, 전체주의의 옹호자, 인종주의자, 계급특권의 옹호자, 위태로운 이데올로기의 선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의 이론적 구조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그것이 현실사회의 적용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포퍼의 왜곡된 비판의 그릇됨을 입증하고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갖고자 한다.

포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공동체의 상호 관련이 무시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개체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이 그 자신을 物로 취급하여 그 사회로 부터 소외되어 그 개인들은 익명의 권위 즉 전체주의로 귀의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포퍼와 같은 논리적 사고는 그것이 단순히 논리적 사고에 그치기 쉬워 합리적일 수 없다.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은 삶에 대한 관심, 모든 구체적 사실, 모든 모순을 알고 있는 전체적 생활의 영위와 탐구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 정치철학의 강점은 나·너의 구별이 있으나 나·너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느 삶의 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통합성이 결여된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쏟아 넣음으로써 각 개인이 침잠하는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의(正義)의 상태에 이르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6) Plato, Laws, 736.

<참고문헌>

- Barker, E.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London, Dover publication Inc 1946)
 Friedrich, C. J &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Harvard, 1956)
 Fromn, E. Escape from freedom. (Rdutledge &Keganpaul Ltd, 1941)
 Plato, The Republic, trans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Cornford F, M (London oxford univ press, 1964)
 Plato, Laws, trans by Taylor, A, E (Bollingen series LXXI, prinston, 1973)
 Plato Letters, trans by Post, L, A (Bollingen series LXXI, prinston, 1973)
 Popper, K,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plato (London, Routtedge & Keganpaul, 1973)
 Popper, K, R, The poverty of Historicism.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 Row, 1964)
 Schapiro, L, Totalitarianism, (장길수역, 전체주의 연구, 서울, 1983)